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 국회토론회

– 계열업체 견제할 수 있는 협동조합 운영 필요 –



본 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7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본회 이홍재 부회장이 주제발표(농협의 육계산업 활성화 방안)를 하였으며 김정주 명예교수(건국대학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구 고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최영찬 교수(서울대학교), 우병준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수 부장(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오세진 대표(대흥농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국내 계열화 사업은 대부분 기업형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협동조합형 계열화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계열화 사업 방식으로 불공정계약이 사라지고 계열화 업체와 농가간 서로 원인이 되길 기대해 본다. 본지는 이날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정리 하였다.



▲ 본회 오세을 회장

주제발표

농협의 육계산업 활성화 방안

현재 농협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장기적인 경영기획의 부재로 국내 육계산업에서 약 3% 정도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 농협이 육계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유통의 다양화,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 대형파커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3년 내 점유율 25% 달성을 등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농협은 공적인 수급조절,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 소비자·생산자 보호, 계열화 사업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계열화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협과 농가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한다면 품목조합 등을 통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계열화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홍재
본회 부회장

토론

국내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독과점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 생산자들의 종속화, 병아리·사료 등 원자재 품질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 원인 농가에 책임 전가, 농가간 과다경쟁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형 계열화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어 생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염려스러운 부분은 국내 계열화 업체가 외국기업에 인수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조합형 계열화 사업으로 기업형 계열화 회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최영찬 교수
서울대학교

계열화 사업의 핵심은 수급안정과 거래비용절감입니다. 현재 생산성이 올라가 거래비용은 절감되고 있으나 수급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계열화 사업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소업체들 마저 끌어들여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2~3개 업체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소속농가(위탁사육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가협의회, 계열화법, 기금조성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병준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수 부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수평계열화 사업이 성공하려면 과거 육계조합의 실패를 거울삼아야 합니다. 육계산업에서 기업형 수직계열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분야 고령화 문제를 살펴보면 육계산업은 고령화율 50%, 후계자 확보는 10%에 그치지만 양돈산업의 경우 고령화율 20%, 후계자 확보 30%로 상대적으로 산업이 안정화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돈산업에서 성공한 협동조합이 존재하기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며 육계산업에서도 협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기업형 대형 패키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지만 농협의 목우촌은 20년 남짓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지만 농가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농협이 생각하는 방향은 분명히 같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 동안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진 대표
대흥농장

농가의 어려움이 관철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일방적 계약, 횡포, 사육비 인하, 생산저하 원인 농가에 전가 등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이면에는 농가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게로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담고 있어 일반 기업과는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 한돈에서 농협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육계부분에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법은 있으나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리감독이 안돼 농가 보호가 제대로 안됩니다. 정부에서도 농가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앞으로 농협이 제2의 가금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종구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계열화 사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2013년 계열화 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 인정합니다. 미흡한 부분을 정부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농가협의회를 활성화 시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 사업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계열화 사업자 도산시 대안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 모델이 나타나면 선택의 문제될 것입니다. 서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힘든 부분인거 같습니다.

(정리 | 최인환 기자, enani85@naver.com)